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제주 대정리로 유배된 추사는 적거지의 고단한 삶을 초의에게 가장 많이 하소연하였다. 때로는 투정을, 혹은 달관된 불교의 경지를, 차를 보내달라는 결명(乞茗)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는 간난(艱難)했던 제주 시절, 그의 큰 위안처가 차와 불교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그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중에 제주에서 보낸 것이 가장 흔한 연유는 여기에 있다. 이번에 소개할 편지는 <완당전집> '여초의' 16신와 <백해타운첩>에 수록된 것으로, 제주 유배 초기인 1842년 3월3일에 썼다. 제주 적소에서 초의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추사의 마음이 잘 드러난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다.

한 번 온다면서 오지 않았으니 이는 성문 제 2과입니다. 어찌 대아라하니 도리어 소송법문을 행하십니까. 범부의 관점에서 보아도 큰 바다는 하늘에 붙어 있어 있는데 만약 법안으로 보면 이것을 꺼릴 것은 없을 듯합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모르겠지만 단월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세간의 이치로는 사원사원하게 처리하지 못함이 있어서입니다. 청산이 깔갈대며 웃고, 백운이 웃은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내 편지는 잠시 묵혀두고 그대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영진(影塵:그림자와 티끌)으로 이어지지 않는군요. 이에 우리 집의 하인 편에 보내니 참선하는 자리에 걸어두면 좋겠습니다. 나는 관하의 주름지도 주름지 않는 것이 없으니 증함도 없고 감함도 없을 따름입니다. 허 소치는 혹 대둔사에 왔습니까. 이만 줄입니다.

(一往來而實無往來 是聲聞第二果 豈大阿羅漢反作此小乘法門 以凡夫觀之 大海粘天 若使法眼

초의에게 제주 유배 고단함 하소연



제주 유배초기 1842년 3월에 쓴 추사의 편지 <백해타운첩>

“온다면서 오지 않았으니 소송 법문” 초의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표현

觀之 似無此礙 未知謂何 聞作權越行云 尚有世諦之拖泥帶水歟 不覺青山呵呵白雲笑笑 拙書留俟飛錫 影塵莫屬 茲因家伴付去 試挂之禪坐處爲佳 此狀 有觀河之皺而不皺者 無增無減耳 許痴或來山中耶 不宣 壬寅 3月3日))

제주도를 찾아온다면 초의의 언약이 몇 차례 무산된 듯. “한번 온다면서 오지 않았으니 이는 성문제 2과”라는 그의 불평은 초의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이리 표현한 것이다. 성문의 제 2과는 육계 수혹(修惑)의 9품 중에 6품을 끊은 성자이다. 하지만 9품 중 3품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으니 천상과 인간 사이를 한번 오고간 이후에야 열반에 든다는 것.

따라서 천상과 인간 세상을 내왕해야 열반의 경지에 드는 것처럼 초의는 제주도와 물을 왕래해야만 최상이 된다는 말이다. 그 말이 은근하다. 제주도는 아득한 땅이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곳을 그가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니다. 대아라한의 경지를 넘어선 초의가 소송법문을 행하느냐는 그의 회안은 추사다운 멋이기도 하다. 범부의 눈으로 보아도 하늘과 바다는 붙어 있는 것, 법안으로 보면 꺼릴 것이 없다는 장쾌한 논리는 그의 자유로운 불교적 입각처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실제 초의가 단월행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전적인 의미의 단월행은 육바라밀 중에 시주물을 베푸는 재시(財施), 불법을 들려주는 법시(法施)인데, 실제 초의의 단월행은 무엇을 보시한다는 것일까. 또 초의가 오기를 기다려 편지도 묵혀두고 기다린 추사는 오지 못한 초의를 이해한 것일까. 자신의 정성을 담아낸 글씨를 써서 초의에게 보낸 것이 분명하다. 자신의 벗, 초의가 항상 곁에 두고 감상하기를 고대했던 추사였다. 살가운 우정이다.

관하(觀河)는 석가모니 부처께서 파사왕에게 원래 생명이 없음을 보여 준 법문이다. 주름은 변한 것이니 멸(滅)을 받고, 주름지지 않은 것은 변한 것이 아니니 생멸(生滅)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런 표현 기법은 추사의 사유(思惟)가 얼마나 깊고, 불교적 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동글고 밝은 빛’ 주제 선화로 진리의 길 인도

선화가 동성 스님 (창원 봉국사 주지)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무궁무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려하시어 이 진리의 길을 수행과 설법으로 직접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제 그림은 부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진리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이고자 합니다”

선화가 동성 스님은 자신의 선화를 이렇게 설명한다. 1978년 첫개인전을 시작으로 스님은 연꽃, 축구공 달마도, 그리고 동글고 밝은 빛까지 선화로 깨달음의 세계를 전해왔다.

동성 스님은 1955년 부산 동래에서 태어나 9세에 고성 스님을 은사로 통도사에서 동진출가했다. 스님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르면 밝은 지혜를 이루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팔만사천번뇌를 낳는다”는 은사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승려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익혔다.

학인 시절에는 팔만대장경과 역대조사들의 생생한 이룩을 두루 섭렵하면서 경봉 스님과 지호 스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특히 성철 스님의 “오로지 부처님만 모시고 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은 동성 스님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런 풍부한 불법의 가르침도 좋았지만 동성 스님을 더 매력시켰던 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교미술이었다. 스님이 살았던 통도사는 사방이 온통 단청, 탱화 주련의 글씨로 가득했다. 이 문양을 익숙하면서 독특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스님의 의식세계를 지배했다. 후원에서 찬상도 준비하고 가마솥에 불을 지펴 밥을 짓는 행자시절, 어린 동자승은 부지깽이로 그 문양을 따라 그리며 숙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랬다.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교복 입고 수학여행 오는 속가의 학생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들을 보면서 막연히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림보다는 글씨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은사 스님이 미국으로 간 사이 서예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6세 때였죠”

이후 동성 스님은 당대 최고의 서예가였던 고천 배재식 선생, 평보 서희환 선생 등에게 글씨를 배우면서 서예의 묘미를 알게 된다.

“스승님께서 채분을 보내주시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글씨 공부를 했죠. 그런데 어느날 한계에 부딪혔어요. 너무도 훌륭한 분들을 스승으로 모셨으니 아무리 글씨도 잘 써봐도 스승을 능가할 수가 없었죠. 글씨를 쓰는 것은 나의 성취감이지만 이것이 세상을 위해 쓰일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님은 이후 그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역대 33 조사상을 배껴면서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을 평가받기 위해 당대 대가였던 운보 김기창 선생을 찾아나선다.

운보는 스님에게 이렇게 묻는다. “세속을 버린 사람이

이 어찌 세속에 다시 왔습니까?” 스님은 이렇게 대답한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속은 무엇이고 불법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불법을 떠난 세속이 없고 세속을 떠난 불법이 없으니 세속과 불법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평등법이고 진리 진실이라 알고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던 운보 선생과 스님은 이렇게 필담을 나눴다. 운보 김기창 선생에게서 화법을 익힌 스님은 자신의 작품을 다듬고 다듬어 1978년 한송이 연꽃이 되어라는 이름으로 개인전을 연다. 당시 스님은 진리를 얻기 위해 진흙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연꽃을 소재로 수행자가 걷는 구도의 길을 보여주었다.

당시만 해도 절집안에서 스님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는 스님에게도 하나의 고뇌와 번뇌를 안겨주기도 했다. “참선수행을 본분으로 하는 구도자로서 혹 외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선수행하며 목을 가까이 했던 선공님들을 떠올리며 이 또한 분발하여 정진하면 또다른 수행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마음을 가다듬고 깨끗한 정신세계를 표현한다는 일념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님에게 창작행위는 속세의 업장을 걷어내는 수행이 되었고 중생의 업연을 막히는 공덕이 된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스님은 대중들에게 선의 세계를 알릴 수 있는 방편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달마도다.

배재식·서희환·김기창 등에게 서화 그림 사사, 선화·달마도 몰입 2002년 ‘공을 든 달마’ 화제

중국 일본 미국 전시는 물론 몽골 인도 대학서 강의 펼쳐 한국 禪의 위대함 세계에 알리

“1990년대부터 그리기 시작한 것이 달마도예요. 사유하는 역대조사들의 인물도를 재현해 깨달음과 자유의 달마도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을 걷어내고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고뇌 정진 공덕으로의 회향’을 달마도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스님의 그림은 불교계를 넘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사건(?)이 생긴다. 바로 월간 <아티스트>에서 스님에게 표지 이미지를 청탁하면서 스님의 그림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축구공을 든 달마’ 그림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것이다.

“고민이 많았어요. 축구와 선화를 연결시켜야 하는데 잘못 그리면 만화 같이 돼 버리니 이를 어떻게 불교적으로 표현해야할지 말이지요. 고민끝에 공이라는 것도 일종의 불교의 공(空)사상과 연결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스님은 공과 공이 하나로 통하는 세상을 달마와 축구공으로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공을 차면서 산을 내려오는 달마, 한일월드컵을 기념해 후지산 위에서 태양과 같은 붉은 축구공을 가리키는 달마, 축구공을 들고 있는 달마 등은 대중들에게 어필하면서 달마의 새로운 경지를 펼쳐보이기 시작했다.

“1500여년간 전형화 돼 내려오는 달마조사를 색다르게 표현했죠. 일체만유의 근본자리를 상징하는 불교의 공사상과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축구공의 참뜻을 접목시켜 그림으로 재현해 냈습니다. 즉 불교의 공사상, 월드컵의 축구공, 불교의 공, 월드컵의 공을 하나로 본 것입니다. ‘공을 든 달마도’는 만유의



천진불



달마도



2006년 중국 시안 대홍선사에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사문동 성달마화비를 건립했다.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줍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피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 | |
|---------|--------------|--------------|
| 제품명 | 신묘장구대다라니 | 42수진언 |
| 크기 및 가격 | 사할용 100,000원 | 가정용 70,000원 |
| | 사할용 65×145cm | 가정용 45×110cm |
| 색상 | 그린·레드 | 그린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동성 스님은 ... 통도사에서 고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4년 금강사에서 일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범어사 불교전문강원, 조계종 중앙교육원, 동국대학교 승가학과, 동 대학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서 교학과 선리를 참주했다. 1970년대 원로서사인 고천 배재식, 평보 서희환 선생으로부터 서법을 사사하고, 원로화백인 운보 김기창 선생으로부터 화법을 개도 받았다. 1984부터 창원 봉국사 주지로서 가람수호와 계종별 도심포교에 주력하고, 35년간 선화를 통해 문화포교를 주관하며,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제3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진리를 상징하는 동시에 이러한 진리를 달마조사께서 들어 보인 것입니다"

새다른 달마도가 잡지의 표지 이미지로 실리면서 스님의 그림은 순식간에 세상의 화제가 되었다. 한 스포츠에 축구공을 든 달마라는 주제로 크게 소개된 것을 시작으로 공중과 방송에서도 스님의 그림을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일본 불교언론매체까지 소개되기에 이른다. 이후 일본쪽에서 전시회 제안이 들어왔지만 스님은 한국전시를 먼저 하고 일본 전시를 갖고 싶다는 원을 세우게 된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을 전시를 추진했으나 종교 그림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된다.

"세종문화회관에 그림 108점을 전시하려고 하니 종교 성향의 작품은 다루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다르마라 전이라고 이름을 붙여 추상화 4점을 기획안으로 제출해 전시회를 열 수 있었어요. 그렇게 2002년 월드컵을 맞아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에서까지 전시를 열 수 있었죠"

스님의 그림을 관람한 교도 고다이 집사장 신형 대화상은 "축구공을 든 유니크한 모습으로 선의 정신을 표현하는 달마대사의 회화를 보았을 때 놀라움과 함께 감개가 무량했다"라며 극찬을 했다. 또한 오사카 화중 총본산 세넨노지 관장 양은 대사는 "스님의 선화는 단순한 미술작품이 아니라 대승보살 정신의 큰 자비와 원력이 담겨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때의 전시를 인연으로 2006년에는 중국 시안 대흥선사에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사문동성달마회비를 건립하기까지 했다.

이제 스님은 '동글고 밝은 빛'이라는 주제에 천착하기 시작한다. "이는 제 그림 속에서 강조하는 선의 정신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을 전해줄 수 있는 선화를 지향하는 거죠. 이제 저는 동글고 밝은 빛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작품 세계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스님은 이후 일본 도쿄·오사카·나고야 등의 개인전은 물론 미국 뉴욕 플러싱오피센터에서 개인전을 갖게 된다. 특히 뉴욕 전시에서는 표현전을 통해 선화

그리기를 재현, 현지인들에게 큰 반응을 얻었다. 또한 지난 2009년에는 불교신문 창간 50주년을 맞아 서울 백악미술관 개인전의 수익금 전액을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하는 보시행을 펼치기도 했다.

대학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선화의 정신을 알리는데에도 적극적이었다. 2012년 몽골 울란바타르 몽골불교대와 2013년 인도 델리대, 뭄바이대 등에서 개인전과 특강을 펼쳐 한국의 선종 사상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스님은 이들 강연에서 "수행자는 자신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정진으로 열반의 공덕을 성취하기 때문에 수행이 곧 행복이 된다"며 "정정한 몸 법신(法身)을 이루고, 정정한 마음 정법안(正法眼)을 이루어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어 가지"며 선의 정신을 강조했다.

물론 스님이 그림으로서만 포교활동을 펼친 것은 아니다. 조계종 제 7교구 흥성 서려사, 제 8교구 금릉 배운사, 제 14교구 창원 봉국사 주지 등을 통해 포교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부산 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교화법사, 마산고등학교 생활관 강사, 육군 제 6128부대 군종담당관, 경남 향승위원회 위원장, 마산동부경찰서 경승실장, 한국부교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계층포교를 펼쳐오고 있다.

선화를 통해 불법의 진리를 펼쳐온 동성 스님은 선을 이렇게 얘기한다. "선이란 고요한 마음에 들게 해 부질없고 허망한 번뇌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찾기 위해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며 일체의 현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 정관념에 사로잡혀 굴림을 당하지도 않고 모든 상황을 원만하게 굴리며 살아가는 이가 곧 수행자죠. 선화는 수행자들의 깨끗한 청정성과 정신세계에서 탄생되는 것임을 늘 명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스님은 오늘도 수행의 세계 그 동글고 밝은 빛을 이루어 가기 위해 선화의 세계에 빠져들 것이다. 그렇게 동성 스님은 붓끝으로 부처님 진리의 세계로 다가가고 있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009년, 백악미술관 개인전의 수익금 전액을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하는 보시행을 실천했다.



동성 스님은 2013년 인도 뭄바이대와 델리대에서 선사화전과 강연을 펼쳤다.

전법일기

어느 날의 일기-2

8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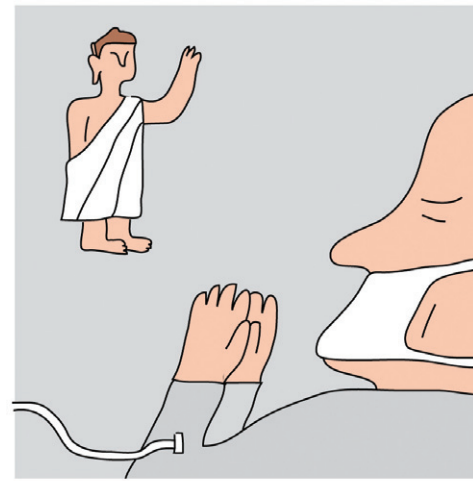
신도 여덟 분과 함께 해각 거사의 병문안을 갔다. 52세, 암이 임파선을 타고 신장에 퍼져 있고 간까지 전이되었다고 하였다. 병실에 들어갔더니 그의 얼굴은 이미 납색이 되어 있었다. 통상적인 인사를 나누는데 그의 눈이 어느 순간 풀려 초점을 잃었다. 내가 그에게 정신이 가끔 풀리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렇다고 솔직히 대답했다. "거사님, 지금은 가끔 그렇지만 점차 그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고통은 심해질 거고, 진통제를 더 많이 쓸 겁니다. 거사님의 육신은 병들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병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병든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으셔야 합니다. 살겠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고통만 길어지게 됩니다."

그는 괴로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나온다고 생각했던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아냈다. 병든 육신은, 그러나 눈물 한 방울조차 인식했다.

"거사님은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정신을 잃기 전에 거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도 정리하시고, 인간관계도 정리하시고, 부인과도 이별하시고, 자식들과도 이별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거사님은 평생을 잘살아오셨으니까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오른쪽 눈에 눈물이 딱 한 방울 맺혔다. 그가 손수건으로 짖어냈다. 나는 말을 계속했다.

당당하게 죽음을 맞자



그림·박구원

낡은 옷 버리고 새 옷 입는

죽음의 참뜻 전해

나무아미타불 부르며 이별

"마지막 순간에는 희고 밝은 빛이 거사님을 데리러 올 겁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순히 따라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평안한 삶을 누리실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욕도 세계 가운데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세계에 가게 되면 고통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로 가서는 안 되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로 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합장하고 따라하시겠습니까. 나무아미타불!" 그는 야위고 검게 혈관이 드러난 손으로 힘있게 합장하

고 "나무아미타불"을 따라 불렀다.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가고 싶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다시 따라하시지요. 나무아미타불!"

그는 몇 번에 걸쳐 나무아미타불을 불렀다. 간절히 염불하라고 말했더니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작별인사를 한 후 병실 밖으로 나왔다. 부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따라 나왔다. 신도들이 그를 얼싸안고 함께 울었다.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저녁에 부인에게 전화하여 말했다.

"내가 많은 사람의 임종을 봤는데 남편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어요. 남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아무말도 쓰다듬으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거사님이 자신의 인생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고, 덕분에 잘 살았다고, 고마웠다는 말도 해 주세요. 맥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전해 주세요."

8월 29일

오늘 다시 병문안을 가려고 했는데 그의 소식이 먼저 왔다.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다고.

어느 누군들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는가.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떠나없이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잘 사는 법이 있는 것처럼, 잘 죽는 법도 있을 터.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두어야겠다. 남의 일이 아니므로.



한복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옴마니반메흠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흠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였다. 옴마니반메흠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흠을 마음속으로 읊조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북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흠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남성용

여성용

가격: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 삼재 조심

2013년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묶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45,000원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방지갑

여성용 방지갑

소중함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함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이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방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북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 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방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방지갑 65,000원, 여성용방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